

마르크시즘에 대한 엥겔스思想의 기여 : 하나의 인식론적 고찰

金 弘 明
(西江大 文科大 教授)

<차 례>	
1. 西歐마르크시즘과 엥겔스	3. 마르크스의 唯物辯證論
2. 엥겔스의 唯物論과 마르크스의 立場	4. 엥겔스의 「唯物辯證法」발전

1. 西歐마르크시즘과 엥겔스

헤겔은 한때 말했다. “위대한 사람이 세계에 부과하는 저주는 세계로 하여금 그를 설명하도록 강요하는 데 있다”고. 마르크스 이후의 서구의 정치적 급진주의는 마르크시즘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받았으며, 특히 마르크시즘의 주요한 면모의 하나인 엥겔스思想을 중심으로 커다란 논쟁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제 엥겔스思想 특히 그의 唯物辯證論을 마르크시즘의 構造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불가피한 學問的 狀況으로 요구했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시즘 哲學의 基礎인 唯物辯證法 혹은 辯證法的 唯物論에 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思想은 현재 서구 마르크시즘의 일반경향과 함께 긴장관계에 들어섰다. 곧 反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물론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대체적 입장은 古典的 마르크시즘이 가지고 있었던 唯物論的 要素를 제거하고 그에 대치하여 西歐의 遺産이라고 할 수 있는 理想主義——헤겔, 칸트, 루소, 스피노자 등——를 재도입하려는 知的 作業으로 옮겨가고 있다. 非마르크스주의자 혹은 反마르크스주의자의 경우 唯物論을 청산하려는 현금의 경향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만, 소위 현대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마르크시즘의 思想的 基礎를 현대에 이르기까지 발전되어온 理想主義의 歸結과 「和解」시키려는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을 내릴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 이론들이 대체적으로 西歐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한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이론들은 서구에 있어서의 資本制의 社會가 결코 마르크스가 예언했던 것처럼 붕괴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金弘明, 1982a:4).

따라서 이들 사회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마르크시즘이 역사의 필연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파악되기에는 더 이상 그 物質的 對象이 필연성을 증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것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이상주의적인 전통에 비교하여 좀더 우월한 시각을 보여주는 그리고 좀더 인간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결과, 이상의 맥락에서 볼 때 마르크시즘은 이제 唯物論的 過程, 物質的 運動에 관한 法則이라기보다는 唯物論的 方法論이라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換言하면 마르크시즘은 더 이상 歷史를 바라보는 하나의 視角내지는 歷史의 展開를 이해하는 데 쓰이는 실제적인 假說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닌 것으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立場의 논리적 전개와 결과,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수행했던 마르크시즘의 이론화, 곧 마르크시즘을 이론적 영역에 한정시키려는 노력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조류로 나타났다. 하나는 人間主義 내지는 實踐指向의 理想主義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이며, 다른 하나는 마르크시즘을 歷史主義의 내지는 經驗-實證主義의 理想主義에 결합시켜보려는 노력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人間主義·實踐指向의 觀點과 歷史主義·經驗-實證主義의 觀點은 唯物辯證法과의 관계에서 볼 때, 서구에 있어 가장 최근에 이르기까지 발전되어 온 理想主義의 틀에 마르크시즘을 復歸시키려는 表現으로서 그것은 마르크시즘의 思想的 基礎의 後退를 의미한다고 읽혀질 수 있다.

마르크시즘의 현대적 해석들은 이처럼 상이한 입장에 선 마르크스理論의 논리화인 까닭에 상호간에 합치할 수 없는 認識過程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들은 하나의 문제에 관해서는 共通分母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주장의 하나는 英겔스 思想의 인식론적 기초, 곧 「唯物辯證法은 自然, 社會 및 思惟의 일반적 運動法則」이라는 데 반대하여 그것은 결코 自然에 擴大解釋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¹⁾ 달리 표현하면, 지금까지 역사상 일어나고

있는 과정 내지 자연현상에 있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은 의식주체인 인간이 이를 파악할 때에만 그것은 하나의 일관되고 체계를 갖춘 과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唯物論의 法則性和 必然性은, 그것이 思惟(精神)의 屬性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인간의 意識內에서의 思惟法則으로서의 의미이상을 넘어선 歷史上 혹은 自然現象에 있어 實現되어지는 「唯物論的 運動」의 辯證法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엥겔스의 唯物論과 마르크스의 立場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여 엥겔스는 自然에 있어서의 辯證法 내지는 歷史에 있어서의 辯證法은 인간이 그것을 파악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으로서 거기에서 제기되고 있는 변증법은 이것을 의식하고 있는 인간 자체에로 축소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엥겔스에 있어서 思惟의 과정은, 어떻게 하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自然의 辯證法, 이미 전개되고 있는 歷史의 辯證法的 運動法則을 발견하는가, 이해하는가에 문제가 있을 뿐 인간의 사유에 나타나고 있는 변증법적 카테고리를 자연에 대입시킴으로써 자연 내지 역사를 인간의 思惟範圍내에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작업이 아니었다. 엥겔스의 유물변증론에 대한 기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엥겔스의 독창성을 표현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르크스 思想의 延長인가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그 하나는 마

- (1) 엥겔스에 대한 反論은 대체로 세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변증법은 方法論이지 自然의 法則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 결과, 古典의 마르크시즘은 法則을 가지고 歷史의 實證主義의 검증을 하려는 소위 觀照的 태도를 취한다고 비판하면서 진정한 마르크시즘은 일정한 사회경제적 조건 아래서 人間의 實踐을 통해 이루어질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대표적 인물들로서는 G. Lukács, K. Korsch, A. Gramsci를 들 수 있다. 둘째, 辯證法은 곧 마르크스주의의 形而上學이며, 이를 고수한 것은 마르크스가 아니라 오로지 엥겔스이라는 입장이다. 辯證法을 하나의 構想을 넘어선 體系로 이해할 경우, 그것은 도그마로 전용된 나머지 마르크시즘의 質的 變化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는 예로서는 A. Schmidt, W. Röd, N. Levine 등이다. 셋째, 엥겔스는 헤겔의 제생인 반면 마르크스는 칸트의 발전이라는 가정하에, 엥겔스는 헤겔의 저작에서 찾아질 수 있는 “물질의 변증법”(Dialektik der Materie)을 재생산함으로써 마르크시즘을 잘못 헤겔에 接合시켰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는 매우 새로운 그러나 설득력을 가지기에는 너무도 논증의 근거가 준비되지 않은 “주장”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체로 L. Colletti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Cf. Lukács(1971); Korsch(1970); Gramsci(1971); Schmidt(1962); Röd(1974); Levine(1975); Colletti(1973).

르크스가 제기했었던 그의 사상에서 가장 획기적인 역사적 관점인 唯物史觀을 엥겔스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種的 宇宙속에 하나의 屬으로서 위치시켰다는 점이다. 그러한 결과 마르크스의 唯物史觀은 대상이 보다 보편화된 物理的 혹은 物質的 世界속에 연결되어져 이의 한 構成部分으로서 자연의 변증법 내지 唯物辯證法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엥겔스의 唯物史觀은, 마르크스가 보여주려고 했던 완성과 종합으로서의 終點을 향한 歷史的 樂觀論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自然史에서 도출된 인간의 역사에 대한 悲觀主義的 觀點을 안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엥겔스는 마르크스보다도 더욱 헤겔의 辯證論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에 비교할 때 엥겔스의 헤겔에 대한 관심은 보다 진지하게 또한 오랜시간에 걸쳐 지속되었다. 나아가서는 헤겔의 「自然哲學」(Naturphilosophie)에 대한 엥겔스의 심오한 통찰은, 그의 遺稿가 되었던「自然의 辯證法」(Dialektik der Natur)속에서 헤겔이 평소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던 辯證論的 觀點, 辯證論的 方法論을 自然現象 내지 自然科學 一般에 적용시키려는 강렬한 집념과 엄격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엥겔스의 헤겔전도(Umkehrung Hegels)는 보다 더 철저한 의미에서 이루어졌으며, 나아가서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방법론이었던 반면 엥겔스에 있어 그것은 하나의 도그마이다라는 이야기에 관련되어진다. 그러한 주장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헤겔의 「自然哲學」 그 자체가 하나의 형이상학이기 때문에 이를 대치하는 형태로 엥겔스가 「自然의 辯證論」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後者 또한 다른 하나의 形而上學, 도그마에 불과하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헤겔연구의 경우 거의 일반적으로 헤겔의 「自然哲學」은 더 이상 논의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서 찾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연구자들 가운데 극소수이나마 헤겔의 「自然哲學」이 쓸모없는 낡은 觀念으로서 헤겔思想에 대한 障礙物인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것은 헤겔哲學의 주요내용일 뿐 아니라 나아가 헤겔思想의 이해에 필수적인 未踏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헤겔의 「自然哲學」——그리고 1801~1804동안의 自然哲學 강의를 포함하여——은 헤겔思想을 唯物論的 解釋에 접합시키려는 일체의 觀點에 대단히 중대한 과제로서 남아 있는 문제인 것이다.

대체적으로 서구의 마르크스주의 연구가들로부터 가해지는 엥겔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혹은 개념상의 성격에서 평가할 때 唯物辯證法에 대한 격렬한 투쟁은 다른 의미에서 고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곧 그것은 모든 自然에 존재하고 있는 外的인, 感覺的인 資料들을 인간의 주관적인 意識의 活動範圍內로 포함시키려는 하나의 認識論的 陷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서게될 때 도달되어지는 최종의 표현양식은 예컨대 歷史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편수(historiography), 혹은 마르크시즘의 唯物論은 方法論的 唯物論이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파악되는 存在(Sein)로서의 歷史 내지 存在로서의 唯物論은 捨象되어진 채로 단지 時間과 空間에 제약된 思惟(Denken)의 영역에 머무르는 歷史 내지 思惟로서의 唯物論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상의 주장에 對比할 때, 엥겔스는 辯證法을 人間思惟의 法則이라는 위치로부터 自然現象의 法則으로, 곧 단순한 方法論에서 存在에 관한 自然法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들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현대 마르크시즘과는 기본적으로 상이한 基礎에서 마르크시즘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결과 마르크스思想과 엥겔스思想의 區分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서 좀 더 연장된 경우 마르크스는 언제나 옳았지만 엥겔스는 그것을 잘못 이해했다거나 크게 변형시켰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또한 소련에 있어서 엥겔스의 『反 뒤링論』은 마르크스주의 認識論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까닭에 소련의 마르크시즘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마르크시즘 곧 엥겔시즘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唯物辯證論이 제기하고 있는 現代의 問題를 일단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한편, 이에 대조적으로 古典的인 마르크시즘 특히 엥겔스를 제외한 마르크스의 논의가 이러한 문제에 관해 어떤 견해를 취했는가를 간단히 개관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思想에 나타난 社會構成體이론은 社會經濟的 現象을 餘他的 모든 現象에 우월한 결정적인 것이라는 입장에 서서 後者의 의미를 前者에 관계하여 파악하고 있다. 곧 다시 말하여 社會構成體의 歷史는 다름아닌 物質的 土臺의 역사인 것이다(金弘明, 1982b). 그것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한 심대한 수정없이 마르크스의 社會思想의 기본적 이해가 이에 비추어 설명될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사회구성체는 최종적인 의미에서 볼 때 歷史가 人間의 自意識의인 통제아래 놓이는 歷史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은 自然史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人間의 歷史는 自然의 歷史로부터 독립되고 혹은 구별되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自然의 歷史의 단순한 一部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인류전체가 자의식적으로 그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를 진행시켜 나아가지 않는 동안 人間의 歷史는 적어도 인간 個體가 아니라 人類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자연의 歷史에 불과한 것으로 마르크스는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經濟와 기타 上部構造와의 關係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經濟構造의 展開過程을 自然史의 過程이라고 마르크스는 『資本論』의 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마르크스의 唯物史觀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상의 文脈을 받아들여 「唯物史觀은 다름아닌 人間社會라는 특수대상에 국한된 自然史의 理解」라고 할 때 그것은 이에 種的인 唯物辯證法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하는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르크스理論에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自然」의 觀念⁽²⁾을 검토할 때 이 문제는 보다 명확히 될 수 있다. 거기에서 社會 즉 人爲的 領域이라고 할 수 있는 第2의 自然에 의해 第1의 自然——原初的인 의미에서의 物理·生物的 自然——이 완전히 대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 1의 自然을 포함하면서도 지배적인 형태로서 第2의 自然이 人間과 環境의 交互關係에 나타난다고 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렇게 될 때 唯物辯證法은 社會現象에 관해 기본적으로 生物學的인 혹은 物理的인 측면으로서 설명되어질 수 없는——즉 그것은 人間의 產物이라는 뜻에서——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용되어지고 있는 語義에서는 한 어디까지나 物理的·生物學的인 背景에 도전하려는 의미를 지닌 人間의 努力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唯物論은 일면 이상의 논의에 한정할 경우에 관한 한 Engels의 唯物論보다 좀 더 미묘한 인상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럼

(2) 이에 관해서는 Schmidt(1962) 참조. 슈미트는 마르크스가 Engels의 自然觀念과 어떻게 다른 자신의 觀念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인식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40년에 걸친 두 사람의 共同的 作業과 친구를 고려할 때 슈미트의 연구는 오로지 경이할 「發見」일 수 밖에 없다는 유추를 상정한다.

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볼 때 그것은 엥겔스의 唯物辯證法의 전반적인 틀을 떠난 것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겠다.

3. 마르크스의 唯物辯證論

마르크스의 唯物辯證論은 그의 思想 특히 그의 方法論과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는 간단히 그의 著作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중요한 면모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먼저 유물변증론적 관점에서 볼 때 그의 初期著作 특히『經濟·哲學手稿』는 人間疎外の 概念을 통해 人間과 物質的 基礎간의 唯物論的 辯證法的 關係를 파헤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疎外の 辯證論(Dialektik der Entäußerung)이 아니라 疎外の 土臺에 관한 辯證論인 것이다. 곧 마르크스의 관심의 의의는 헤겔처럼 普遍的 人間의 否定인 疎外된 人間의 辯證法的 否定을 논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疎外된 人間으로서의 勞動者와 蓄積된 勞動인 資本의 交互的 展開運動을 밝혀내는 데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서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것은 일면에 있어서는 이의 物質的인 성격——존재로서의 人間이라든지 對象, 혹은 人間과 對象간의 客觀的·存在的 關係 및 이러한 것이 歷史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곧 소외의 내용이 물질적인 土臺위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唯物論的인 것이다. 그러면서도『경제·철학수고』의 다른 하나의 측면에서 잘 소외현실의 고발이나 이의 극복을 위한 實踐(praxis)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人間主義的 觀點은 비록 소외의 변증론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의 唯物論的 立場에 대한 중대한 制限要素인 것이다.

換言하면 헤겔에 있어서의 主體(Subjekt)라는 관념은 神·精神·概念·絶對構想 등으로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主體는 이처럼 神秘的 形態로 나타난 설명되어야 할 觀念的 存在가 아니었다. 곧 그것은 歷史的 現存在인 다름아닌 실제 살아있는, 먹고 살아야 하는, 그리고 고통을 느끼고 혹은 정열을 가진 그러한 存在로서의 人間인 것이다. 人間은 그의 환경으로서의 外部와의 交互關係에 놓이게 되고, 그것은 하나의 衝動構造(Triebstruktur)로서의 人間은 慾求充足을 위한 勞動(Arbeit)을 매개로 하

여 그 자신의 삶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勞動力의 外化인 勞動을 통해 人間은 客體化(Vergegenständlichung)過程에 들어가며 그것은 동시에 主體가 對象化됨을 의미한다(金弘明, 1977).

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헤겔에 있어서의 對象은 어디까지나 意識의 他者的 存在(Anderssein)로서의 모습이다. 그것은 意識 그 자체가 특수한 형태로 나타난 表象일 뿐 아니라 意識을 위한 存在이기도 하다. 따라서 對象은 意識으로부터 떨어져서 意識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客觀的인, 곧 그 자체가 主體인 存在가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意識의 模寫 내지 意識의 外的 表現 이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對象은 意識과의 관련없어도, 그것은 비록 人間과의 관계에서는 無이지만 存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거부될 수 없는 物質的 觀點인 것이다. 마르크스에 있어 主體와 對象이 存在的 次元에서 파악되었을 때 이들의 關係 또한 觀念的인 것이 아니라 客觀的 性格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러한 關係는 헤겔의 경우 意識·精神·思惟의 存在的 表象인 자기자신에 대한 관계인 이상, 이러한 關係를 표현하는 각 契機(Moment)가 비록 客觀的이라고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르크스의 경우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관계들이 아니라 思辨的인 것의 客觀的 實現이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헤겔에 있어서의 문제의 解決은 언제나 변함없이 思惟領域에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었지만,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문제의 解決은 歷史의 存在的 狀況을 變化시키는 實踐領域의 과제로서 항상 存在로서의 歷史 그 자체에 향해졌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對象과 主體의 關係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다른 하나의 측면은 疎外的 變증론이라는 그 反對的인 성격을 남겼다. 곧 人間은 그에 獨立的으로 存在하는 自然을 그 자신의 所産으로서 관계하는 동시에 그 자신이 自然의 產物이라는 점에서 人間은 기본적으로 物質的 土臺 위에서 辯證法的인 過程에 놓여 있지만, 人間疎外的인 현실과 그 克服을 위한 그의 人間主義的 觀點은 그 자체가 하나의 自律的 메카니즘인양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마르크스는 당시 크게 발전시키지는 못했으나 人間과 自然 사이의 物質的인 辯證法的 關係를 적어도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그의 『經濟·哲學手稿』에서 확실히 한 것처럼 보인다.

마르크스의 唯物辯證法은 훗날 그의 『政治經濟學批判의 基礎』(1857~1858)

에서 보다 發展된 형태로 정돈되고 있다.⁽³⁾ 거기에서 그는 辯證法的인 과정을 方法論으로 발전시켜 종래에 사용되어 온 分析·綜合的 方法論에 대립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후자들이 가지는 硬直性을 극복한 接近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社會科學에 있어 分析的 接近과 綜合的 接近에 대립하여 그가 辯證法的 接近을 내놓게 된 것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視角과 근본적으로 다른 視角에 섰던 데 기인한다.

물론 마르크스가 구체적으로 사용했던 方法은 흄스가 제시했던 解體·再構成(resolutive-compositive method)의 方法論과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 일단 의문을 던지는 측면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人口를 논의하는데 있어 그것은 이를 구성하는 階級들의 分析을 要求하며 이것은 다시 階級들을 이의 物質的 土臺인 社會의 生産過程으로 解體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人口라고 하는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을 階級이라고 하는 보다 具體的인——그러나 그것이 一體概念으로 포함하는 그 내부의 수많은 多樣한 文化的·經濟的 差異를 가지는 下位單位에 비교할 때 가장 單純한 構想을 나타내는——개념이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階級을 出發點으로 보게 된 것은 그것이 일면 앞으로 전개과정에서 수정을 겪게 될 가장 單純한 개념이면서도 동시에 抽象에서 具體으로 옮기는 作業에 필요한 具體的 資料의 틀이라는 데 있다. 곧 그것은 抽象의 해체를 통해 현실의 具體的인 資料를 내용으로 하는 單純構想에 이르며, 그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다시금 社會의 生産關係的 規定으로서 階級이라는 概念을 全體속에서의 具體로 이행시키는 再構成을 수반한다. 따라서 그것은 흄스의 방법론과 상당한 類似性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흄스는 解體와 再構成을 機械論的으로 적용시킨 나머지 그것은 段階的인 것이 아니며 또한 單時的인 것이 반면, 마르크스에 있어 기초개념은 資料를 통한 內容의 展開를 따라 複合概念으로 移行하며 또한 그것은 기본적으로 運動過程을 설명하려는 圖式이라는 점에서 구별되어진다. 마르크스의 方法論은 어떻든 그것이 『政治經濟學批判의 基礎』에 관한 한 약 2~3면에 걸쳐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곳곳에서 상상력을 표출시키고 있는 까닭에 그것을 둘러싸고 해석상의 많은 難點이 일고 있다.

『政治經濟學批判의 基礎』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주로 概念에 관한 논쟁이

(3) Marx(1953). 특히 마르크스의 序文(Einleitung)참조. 마르크스의 方法論에 대한 새로운 分析으로서 Carver(1975), Part I 참조. 이에 대조하여 뒤에 논의되는 Hobbes의 方法論에 관해서는 Watkins(1965) 참조.

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특히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概念에 대한 비판형태로 나타났다. 곧 마르크스에 의하면 모든 경제적 카테고리들은 사실인즉 그것이 생성되고 현존을 가지는 것들(Daseinsformen)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부르조아사회내에서 存在를 가지고 있다. 概念들이란 구경 부르조아 사회속에서 현재적 관행으로서 존재를 가지는 現象들이 抽象化된 것으로서 그것은 歷史的·社會的 事實의 反映일 뿐 普遍的 概念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조아 經濟學者들이 中立的·科學的, 혹은 永續性을 가진 概念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제적 카테고리들이란 실질적인 의미에서 부르조아 社會의 運動의 矛盾을 은폐한 채 이의 現實을 理論化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마르크스는 보았다.

이러한 假定 아래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은 기본적으로 概念 자체의 歷史性을 배제한 채, 다시 말하여 부르조아사회의 비판을 배제한 채 經濟的機能을 설명하는 데 기여했다는 입장을 마르크스는 취했다. 그러한 결과, 부르조아 政治經濟學의 “科學的” 接近은 그것이 서고 있는 현실태를 과정속에서 파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普遍的 概念」을 상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概念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現存在的 形態들에 불과하며 이들은 언제나 이들이 속한 社會의 經濟的·文化的 實狀을 投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基底인 物質的 土臺의 전개, 곧 物的 世界的 推動力으로 작용하는 矛盾構造와 그것의 實存樣式을 구명하는 것이 바로 科學과 知識의 역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끝으로 마르크스의 『資本論』에 나타나고 있는 接近法을 본다면, 그것은 다시금 주관심사인 資本의 運動法則 그 자체와 이러한 運動形態를 내재적으로 묶고 있는 연결력 곧 연계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마르크스는 具體와 抽象의 상호 이행을 통한 점진적 전개의 결과로서 가장 原初的인 概念인 商品에서 출발하여 이의 物的 推動力인 資本의 蓄積과 矛盾에의 이행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原子로서의 商品은 그것이 가지는 使用價値⁽⁴⁾가 무시된 채 交換價値만으로 파악되어 진행되는 결과, 資本制는 최종적으로 生産財部門과 消費財部門間의 生産過程에 있어서의 증대되어가는 矛盾, 生産能力과 消費狀況과의 증대되어가는 不均衡, 그리고 이러

(4) 마르크스의 『資本論』을 이해하는 데 있어 使用價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로서는 Pilling(1980)참조.

한 土臺의 상황과 더불어 資本의 集中·集合이 資本의 有機的構成의 결과 資本家에게 가져오는 利潤率減少의 경향과 그에 부수적인 현상으로서 기술 혁신이 낳는 항상적 실업의 귀결인 産業豫備軍의 組織化와 資本에 대한 敵對感의 深化라는 資本制的 틀 내에서 解決이 불가능한 破局에로의 推動力을 그 내부에 胚胎하고 있다는 것이다.⁽⁵⁾ 그리고 이 矛盾의 推動力은 근본적으로 物的인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資本論』에서 그가 제시하고 있는 唯物辯證法을 설명 하면서 일면 그것은 헤겔의 변증법 자체가 관념론적으로 집근된 形態의 잘못 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오를 시정하여 유물론적인 형태로 바꾸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다른 한 면에서 자신의 방법론을 가리켜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을 가지고 하나의 유희를 한 데 불과하다(kokettieren)고 이야기 한다. 그것의 表現이 가지는 의미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곧 마르크스가 머리로 서 있는 헤겔의 변증법을 뒤집어 바로 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자신의 작업을 설명했을 때 내용상의 차이가 없는 채 단지 형태의 전도를 통한 마르크스의 기여는 무엇인가? 다시 마르크스가 헤겔의 변증법을 가지고 유희를 한 것이라면, 마르크스는 참으로 진지한 의미에서 변증법을 사용했는가? 이처럼 마르크스 자신의 표현은 문제를 제기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르크스의 유물변증론 전반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가는 과정 가운데 약간이나마 밝혀질 수가 있겠다.

마르크스는 『資本論』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헤겔의 저작에 있어서 辯證論은 머리로 서 있다. 만약에 당신이 神秘的인 外皮속에 담긴 合理的인 核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이를 다시 뒤집어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⁶⁾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헤겔辯證法이 지닌 合理的 核과 神秘的 外皮인가, 그리고 이들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이다. 이에 대하여 엥겔스는 마르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 놓고

(5) 生産財·消費財部門간의 不均衡——이는 Sweezy에 의해서 단지 單純·擴大再生産의 문제로 해설되고 있다. 또한 그에게는 資本의 有機的 構成에 따른 「利潤率減少의 法則」은 하나의 경향 혹은 제 3권에서 도입되는 複合要素에 의해 止揚되어지는 이론으로 보여진다(Sweezy, 1956).

(6) 소위 『資本論』(제 1권 p.25)에 나오는 「헤겔顯到」의 문제이다. 그것의 內容에 담긴 質的 變換—즉 剩餘價値의 발견—에 관해서는 Althusser and Balibar (1970:144-155) 참조. 그리고 이의 인식론적 성격의 구명에 대해서는 김홍명 (1979) 참조.

있다. 곧 “그것은 전도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思想의 自己運動’을 가정하고 따라서 事實의 辯證法은 이의 反映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여 실제로는 우리의 두뇌에 있는 辯證法은 단지 自然界와 人間歷史에서 수행되는 실질적 전개와 반영일 뿐이다”라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모든 自然現象과 社會現象은, 人間이 생각한 결과로 있게 되는 소위 觀念의 產物이 아니라 人間思惟에 內在하는 精神의 現存的인 모습이라는 의미에서, 人間思惟의 實像인 것이다.

그러므로 헤겔 辯證法은 矛盾을 기초로 實際世界의 運動이 진행하는 것을 과학한 合理的 核을 포함했지만, 그것이 表現된 樣式 즉 存在的 事實의 問題를 단지 精神의 展開의 各 契機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神秘的 外皮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헤겔의 辯證法이 지닌 획기적인 내용을 재생시키는 과제는 마르크스나 엥겔스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이 지닌 내용에서 신비화된 형태를 벗겨내는 것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헤겔 辯證法의 형태적 오류를 제거시키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보다 단순하고 보편적인 物的 運動의 法則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4. 엥겔스의 「唯物辯證法」 발전

辯證法의 기본적인 가치 및 위치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때, 그것이 대체로 方法論인가, 存在論인가, 아니면 形而上學인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문제는 唯物辯證法의 성격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이해는 어떠한 缺陷 혹은 限界를 가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辯證論이 形而上學이 아니라는 것을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정의에 의하면 형이상학이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는 科學的 事實 내지 過程과 무관하게 단순히 推測을 통한 事象의 究明이다. 形而上學이 唯物辯證論의 직접적인 反對概念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로, 그것의 성격을 밝히는 작업은 다른 면에 있어 辯證論을 이해하는 端初를 가져온다. 엥겔스는 『反뒤링論』에서, “그것은 하나의 이론틀로서… 거기에서 事象들의 광범한 전체적 연계로부터 절연된 채 자연적 대상과 자연적 과정이 고

립상태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들 自然的 對象과 自然的 過程을 운동에서가 아니라 休止에서, 이들을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데서가 아니라 고정된 常數들로서, 이들의 삶에서가 아니라 죽음에서 보여준다”(Engels, 1939:27)고 形而上學的 接近法을 설명하고 있다. 곧 모든 事象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다른 하나에 대한 因果關係는 고정된 因果律에 종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경계와 변화를 따라 오히려 이의 전도상황을 가져온다. 따라서 形式論理學이 自然現象을 區分하고 하나가 原因이면 계속 원인으로 혹은 하나가 +이면 계속 +로 생각할 뿐, 이의 위치가 뒤바뀐다든가 +이면서도 -인 상태, 혹은 있는 것이 동시에 없는 것인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은 형이상학의 論理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볼 때 自然現象과 카테고리 的 關係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모든 자연현상 내지 歷史現象은 너무도 流動的이며 變遷的인 반면 이를 概念化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고정적이기 마련인 까닭에, 前者에 의한 後者의 끊임없는 수정·변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人間의 思惟는 때때로, 그것이 특히 勞動의 土臺에서 분리된 自轉的 知的活動이 될 때 후자에 의한 前者의 규정이 있게 되며 그에 따라 自然現象은 이처럼 자신의 삶의 기간을 넘어서는 카테고리의 프리즘을 통과하여 보여진다. 그것은 현상의 파악이 아니라 現象에 대한 認識의 獨裁의 規定이며 곧 形而上學으로 옮겨진다. 따라서 형이상학적인 방법론은 필연코 인간의 사유에 있어 협소하고 경직된 사고를 낳게 되고, 엥겔스에 의하면 그러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唯物辯證論이 가지고 있는 觀點과는 결코 합치할 수 없는 世界觀과 方法論의 結果이다.

결론적으로, 唯物辯證論은 이상의 形而上學的인 思惟樣式에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事象의 실질적인 相互關係 내지 실질적인 相互變遷性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인 까닭에, 機械論的이거나 靜態的인 방식으로부터가 아니라 運動에 있어 그리고 消滅과 形成에 있어 事象을 바라보려는 세계관의 產物이다. 그것이 내세우는 妥當性은 思辯論이나 懷疑論에서 보는 것처럼 直觀的 確認 혹은 認識의 主觀的 合致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現象의 실제속에서 客觀性을 얻어내는 성격의 것이다.

엥겔스는 『反뒤링論』에서 변증법적인 세계관을 지닌, 혹은 思想의 변증법적 요소를 보여준 많은 사상가들⁽⁷⁾—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스피노

(7)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한 흥미있는 질문은, 변증법이 自然에 대한 思惟의 反

자, 디드로, 루소——을 설명하고, 이들의 사상 가운데서 구체적인 면모를 들어 변증법적 사고 내지 변증법적 방법론을 도출해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헤겔에 와서야 비로소 그것이 가진 神秘的 外皮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綜合的 體系로서 辯證法이 등장했음을 지적했다.⁽⁸⁾

그렇다면 그가 지적한 헤겔의 辯證法이 지닌 基本法則은 무엇인가? 그 내용은 엥겔스에 있어서 대체로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는 對立物의 상호침투의 법칙(das Gesetz von der Durchdringung der Gegensätze)이다. 두번째는 量의 質로의 轉化 및 그 反對에의 移行의 법칙(das Gesetz des Umschlagens von Quantität in Qualität und umgekehrt)이다. 마지막으로, 否定의 否定의 법칙(das Gesetz von der Negation der Negation)이다. 이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헤겔 辯證法이 지닌 古典的인 세 개의 법칙으로서 엥겔스는 『反뒤링論』에서 방대한 분량을 할애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그의 평가는 레닌의 『哲學手稿』 가운데의 「헤겔에 관한 註釋」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된다(Engels, 1939:131-157).⁽⁹⁾

自然現象 및 歷史現象의 辯證法的 關係 및 展開는, 엥겔스의 理論的 世界 속에서 본다면 그것의 본질은 認識論的인 것이 아니라 存在論的인 (ontologisch)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物質은 우리의 認識與否와는 관계없이 自然現象 내지 歷史에 실질적으로 있는 運動의 實體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科學의 발달에 따른 종래의 물질 概念의 거부는 그것의 存在에 대

映일 때 왜 自然科學者보다, 엥겔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哲學者가 먼저 이러한 辯證法을 파악하게 되는가이다. (엥겔스에 의하면 예컨대 칸트는 “지구와 천체 양계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처음으로 地球形成을 파악했다. 엥겔스는 이어서 『自然의 辯證法』에서 “全體自然은 영원한 형성과 소멸, 不休的 流動, 그리고 쉬지않는 運動과 變化에서 자신의 存在를 가진다”고 말한다. 그것은, 事象의 發見·觀察過程에서 自然科學者가 subject matter를 질문하지 않은 채 기존의 카테고리들 사용하지만 哲學은 먼저 자신의 subject matter를 질문하고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데 있다. 곧 哲學은 思惟의 範疇를 통해서 事象의 구명을 추구하는 한 가장 根源的(radikal)으로 파고드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는 까닭이다.

- (8) 특히 엥겔스는 후년 「루트비히 포이에르바하 및 독일관념론이 종언」에서 “독일철학, 특히 헤겔의 철학없이는 科學的 社會主義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마르크스 또한 초기의 『經濟·哲學手稿』에서 헤겔변증법을 “運動과 形成의 原理로서의 否定的 辯證法”이라고 受容하고 있다.
- (9) 또한 레닌은 “자연과 사회에 놓인 모든 境界들이란 因習의이며 流動的이라는 것 그리고 일정한 조건하에서 자신의 反對에로 변형되어지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 辯證法的의 기본명제이다”고 말한다(Lenin, 19:203).

한 문제가 아니라 存在하는 것에 대한 認識上的 변화에 불과하다. 이처럼 關係와 展開의 存在論的 性格은, 곧 自然의 운동에 머물고 있는 하나의 존재론적 측면은 인간의 사유에 의해 파악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人間의 思惟法則에로 축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人間思惟의 範圍밖에서 실제로 존재·변화하는 現象의 辯證法的 法則을 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法則의 客觀性과 이 客觀性을 법칙으로 認識하는 知識의 相關性은 그렇게 간단히 보아질 수는 없다. 다시 말하여 客觀性的 認識은 이의 필연성이 自然現象 내지 歷史 自體로 나타날 때까지는, 즉 그것을 인간의 실질적 경험을 통하여 얻어낼 때까지 知識은 法則이 아니라 하나의 方法論일 수 밖에 없다.⁽¹⁰⁾ 그것은 우리가 否定的 否定的 法則을 적용하여 生産者의 所有와 이의 否定인 資本制에 대한 否定으로서 共產主義社會를 이야기 한다고 할 때, 그것은 共產主義社會가 나타날 때까지, 환언하면 인간이 이를 체험할 때까지 唯物辯證論은 실질적인 法則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 유물변증론은—自然現象과 歷史에서 실현되지 않는 한—일면에 있어 思惟의 法則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좀 더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그것은 실현되지 않는 한 형이상학적인 必然性的 不毛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¹⁾ 그러한 그것은 하나의 믿음의 문제일 뿐이다.

유물변증론의 이러한 측면은 엥겔스 자신도 시인하는 듯 보인다. 곧 그는 이러한 법칙의 眞僞를 밝히는 것은 自然現象과 歷史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唯物辯證法은 自然現象과 歷史를 바라보는 인식주체로서의 인간이 이러한 것들의 生成·存在·消滅하는 것을 보면서 이의 運動을 가장 일관적으로 抽象化한 것이다. 그 결과 엥겔스에 있어서는 유물변증론이 기

(10) 여기서 우리는 辯證法이 하나의 觀·論理·方法論으로 머무르는 困境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本質的 性格은 自然 그자체의 辯證法的 現象에서 구명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즉 “변증법은 自然·人間社會 및 思惟의 보편적인 運動과 展開의 法則에 관한 科學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Die Dialektik ist... nichts als die Wissenschaft von den allgemeinen Bewegungs- und Entwicklungsgesetzen der Natur, der Menschengesellschaft und des Denkens.) (Engels, 1939:155).

(11) 예컨대 세바인은 辯證法的 결과 마르크스의 논리는 약화되었으며, 개연성과 엄격한 의미간의 구분을 짓지 않는 인식상 문제를 남겼다고 말한다. 나아가 그는 마르크스가 헤겔의 觀念論的 形而上學을 唯物論的 形而上學으로 代替했다고 이해하고 있다(Sabine, 1961:764, 779).

본적으로 존재론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칙에 수용되어지지 않은 形成的 事實에 關係해 볼 때, 그것은 運動의 未來를 발견하려는 혹은 經驗論的으로 形成을 통하여 法則을 檢證하려는 하나의 指針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實際에 관해서는 客觀的 法則을 내용으로 가지는 것이지만 앞으로의 검증의 과정에 놓인 事象의 展開에 관한 한 이들 法則을 대입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指針으로서 현실을 통과함으로써만 內容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데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Engels에 있어서 유물변증론은 결코 dogma로 硬化될 수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한 관점은 보다 확대되어 예컨대 불세비키革命的의 과정에서 마르크시즘은 하나의 행동지침이지 dogma이어서는 안된다고 한 레닌의 解釋과 關係되어진다.⁽¹²⁾

또한 이러한 변증론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Engels는 각 科學이 전문화되고 개별화됨에 따라 哲學의 制限영역이 침범되었던 까닭에 철학은 더 이상 종합적인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다만 思惟의 法則으로 남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곧 철학의 내용으로서 최종적으로 잔류하는 것은 사유의 과학 내지 법칙으로서의 形式論理學과 辯證法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 Engels의 「自然의 辯證法」은, 기본적으로 自然科學의 이론적 발전들이 自然現象의 辯證法的의 性格을 보다 분명하도록 가져온다는 전제하에, 종래의 反辯證法的·形而上學的의 觀念의 틀안에서 事實을 설명하려는 經驗主義에 대한 拘束할 수 없는 限界를 제시할 뿐 아니라 自然現象을 보다 일관되고 체계있는 틀안에서 合理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試圖로 보았다.

즉 自然科學의 발달은 自然現象에 존재하는 지금까지 발견되어지지 않은 많은 사실들을 점차 科學的 領域으로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지게 하고 그 결과 辯證法에 대립되는 形而上學的의 觀念을 전제로 사실을 集積시키고 이를 증명해내는 經驗論的 方法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¹³⁾ 그런 점에서 그는 辯證法을 일면 方法論的인 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方法論的 側面을 가장 강조할 때 우리는 Engels의 辯證法 논의가 다음과

(12) 특히 1917년 10월 불세비키革命을 둘러싸고 나타난 레닌 對 지노비예프·카메네프의 논쟁을 참고(Lenin, 재인용, Mills, 1962; 김홍명 역 1982:237). “나의 친구여 理論은 햇빛 이지만 푸른 것은 영원한 삶의 나무라오.”

(13) Engels의 이러한 樂觀이 論爭의 임은 물론이다. 產業과 自然科學의 發達은 그 反對, 즉 변증법적 觀點을 부인하도록 발전될 수도 혹은 그에 어떠한 결정적인 方向을 제시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같이 확대되고 있음을 본다. 예컨대 物理學의 영역에 있어서 質量不變의 법칙이 종래에 있어서 物質의 量的인 측면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엥겔스의 시대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발견되어진 에너지의 形態變化는 기본적으로 이의 質的 側面을 설명했던 것이다. 또한 生物學 그리고 一般的으로 自然現象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分類와 區分은 사실상 우리의 思惟에 있어서 규정된 경직화된 分類 내지 區分일 뿐 이의 妥當性은 自然現象 그 자체에 관한 한 오로지 相對的인 데 그친다. 즉 既存의 思惟에 설정되었던 自然現象에 있어서의 對立 내지 區分은 변형되어지고 소멸되며 오히려 그 反對에 이행해 간다는 점에서 相對的 境界를 가지고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自然現象 자체를 唯物辯證論과 관련시켜 볼 때 후자는 진자로부터 추상화된 하나의 圖式에 머무를 것이지만, 만약 우리가 思惟過程에서 얻어진 法則으로, 形而上學으로, 方法論으로 唯物辯證論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자연현상이 궁극적으로 변증법적인 전개를 하고 있는 한」 자연현상의 이해에 훨씬 더 적실성을 가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辯證論의 方法論상의 우월성을 가정하게 될 때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왜 그것이 學問의 영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이다. 마르크스는 『資本論』에서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곧 “헤겔의 시대에 있어 독일의 觀念的 哲學에 나타나는 辯證法은 이미 유행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헤겔의 辯證法이 合理的인 形態——唯物論的 形態——를 취하게 될 때, 그것은 부르조아社會의 기본적인 既存現象의 肯定的 측면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이의 否定을 또한 이해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부르조아학자와 부르조아계급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혐오감을 일으켰던 것이다.”

환언하면, 辯證法의 수용에 있어 나타나는 장벽은 마르크스의 입장에 설 때 다름아닌 階級社會에 상존하는 階級的 利害에 있었다. 동시에 거기에 있는 矛盾은 바로 運動의 展開에 있어 辯證法 作用의 物的 推動力 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矛盾과 對立을 構造로 가지는 社會·自然現象을 파악하는 데 있어 辯證論이 취하는 기본적 관점은 일체의 존재가 하나의 流動的 運動過程 속에 놓여 있으며 나아가서 그것이 생성되어지는 것의 先行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自然現象과 歷史에 있어 모든 事象의 辯證法的 流轉⁽¹⁴⁾을 하나

(14)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실제적인 것의 비실제적인 것에로의 이행이다. 엥겔스

의 觀點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存在를 解體·生成으로 파악하는, 곧 物質을 運動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辯證法을 基本的 觀點이라는 方法論과 하나의 客觀的 法則이라는 自然의 辯證法으로 이해하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작업은 구체적으로 변증법적인 카테고리 그 자체를 발전시키고 이들 카테고리들간의 논리관계를 구명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았다. 환언하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변증법적인 카테고리들을 엄격하게 전개시키지 않았으며, 그 결과 辯證法을 하나의 학문으로서 축조시키지 않았던 것이다.⁽¹⁵⁾ 그것은 일면 자기들의 사상이 소위 발전된 辯證法的 카테고리와의 구조안으로 결정되어 얽매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데 기인하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변증법이 하나의 科學的 基礎위에서 그 자체의 영역을 가지고 발전하기에는 너무도 애매한 不確定性을 가지게 하였던 것은 바로 그러한 緣由에서 찾아질 수 있다.⁽¹⁶⁾

결론적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變化 一般 그리고 이러한 變化過程에 表出되는 여러 複合的인 原因的 要素들, 혹은 自然·社會現象에 나타나는 原因과 結果 및 運動을 통한 因果方向의 교차·전환이, 自然과 歷史의 變遷 자체가 항상 生成과 消滅을 안고서 그리고 동시에 進步的인 綜合에로의 方向을 가리키면서 展開된다고 하는 사실을 내용으로서 설명해 줄 것이라는 점

는 “모든 이전의 실제적인 것은 비실제적인 것이 되며, 그것의 필연성, 그것의 존재의 권리, 그것의 합리성을 상실한다… 이처럼 可死的 實在 대신에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실체가 온다… 인간역사의 영역에서 모든 실제적인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합리적인 것이 되며 따라서 종착점에서는 이미 불합리한 것이다… 실제적인 모든 것에서의 합리성의 명제는 반명제로 대체된다. 곧 모든 존재하는 것은 소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Engels, 1888, 제인용, Feuer, 1959:198-199).

(15) 노박은 “모든 定式化란 임시적이고 한정적이며 近似值를 가질 뿐이라는 것을 변증론자는 인정한다. 왜냐하면 모든 存在形態는 變遷의이며 限定的이기 때문이다(Novack, 1969:71). 따라서 完成으로서의 定式化는 그 內在的 限界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곧 헤겔의 『論理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것을 자신의 밖으로 내보내는 矛盾은 限界에 內在的이다”는 점에서, 矛盾을 제거하려는 非辯證法的 態度를 전제한다. 그렇기에 엥겔스는 “모든 것을 포괄하며 어느 시대에도 최종적인 自然·歷史知識의 體系란 그 자체 辯證法的 思惟의 기본법에 모순이다”(Engels, 1939:31)고 지적하고 있다.

(16) 1858년 엥겔스에 보낸 마르크스의 편지(McLellan, 1971:135). 거기서 마르크스는 “헤겔이 발견하였던 그러나 동시에 신비주의에 썩인 방법론이 내포한 合理的인 내용을 40페이지 정도로” 쓰기를 희망했다. 그것은 훗날 엥겔스(1888)에 의해 실현되었다.

을 강조하는 데 만족했을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학문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科學的 기반형성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그러한 까닭에 그들의 변증론은 기껏해야 학문적인 절충주의(Eklektizismus) 내지는 오늘날과 같은 「科學時代」에 있어 학문의 검증과정의 엄격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관점을 내포했다는 등 상당한 혼란을 빚고 있다. 그것은 균형을 위해서는 현시대의 「科學的 實證主義的 側面」을 검토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지만 이에 관한 논의란 本稿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에 있어서 적어도 공산권의 사회내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그리고 마르크스나 헤겔의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辯證法을 둘러싼 엥겔스의 논의는 우리에게 단순히 거부되어질 對象이라기보다는 끊임없는 理論的 探究의 다른 한 측면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최소한 思想의 分野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金弘明

- 1977 “루소와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客體化의 問題,”(英文)『한미政治學會報』, 한국정치학회.
- 1979 “루이 알튀세르의 理論的 概念의 논의,”(英文)『한미政治學會報』, 한국정치학회
- 1982a “마르크시즘의 최근동향,”『大學新聞』, 서울대학교, 10.4:4면.
- 1982b “土臺와 이데올로기,”『中蘇研究』 제 6 권 제 4 호, 한양대 중소문제연구소.
- Althusser, Louis and Etienne Balibar
- 1970 *Reading Capital*, NLB, London.
- Carver, Terrell(tr. and ed.)
- 1975 *Karl Marx: Texts on Method*, Basil Blackwell, Oxford.
- Colletti, Lucio
- 1973 *Marxism and Hegel*, NLB, London.
- Engels, Friedrich
- 1888 *Ludwig Feuerbach und der Ausgang der Klassischen Deutschen Philosophie*.
- 1939 *Herr Eugen Dühring's Revolution in Science(Anti-Dühring)*, International Publishers, New York.
- Feuer, Lewis (ed.)
- 1959 *Marx and Engels: Basic Writings on Politics and Philosophy*, Doubleday & Co., Garden City, New York.

Gramsci, Antonio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 International Publishers, New York.

Korsch, Karl

1970 *Marxism and Philosophy*, Monthly Review, New York.

Lenin, V.I.

Collected Works, Vol. 19,

1962 "On Tactics in the 1917 Revolution," in C.W. Mills, ed., *The Marxists*,

Dell Publishing, New York; 김홍명 역, 『마르크스주의자들』 한길사, 서울, 1982.

Levine, Norman

1975 *The Tragic Deception: Marx Contra Engels*, Clio Books, Oxford.

Lukaács, Georg

1971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MIT Press, Mass.

Marx, Karl

1953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Dietz Verlag, Berlin.

McLellan, David

1971 *The Thoughts of Karl Marx*, Harper & Row, New York.

Novack, George

1969 *An Introduction to the Logic of Marxism*, Merit Publishers, New York.

Pilling, Geoffrey

1980 *Marx's Capital: Philosophy and Political Economy*,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Röd, Wolfgang

1974 *Dialektische Philosophie der Neuzeit*, zweite Band, C.H. Beck, München.

Sabine, George

1961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 3rd ed.,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Schmidt, Alfred

1962 *Der Begriff der Natur in der Lehre von Marx*, Europäische Verlagsanstalt, Frankfurt.

Sweezy, Paul

1956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Principles of Marxian Political Economy*, Monthly Review, New York.

Watkins, T.W.N.

1965 *Hobbes's System of Ideas: A Study in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Philosophical Theories*, Hutchinson Library, London.